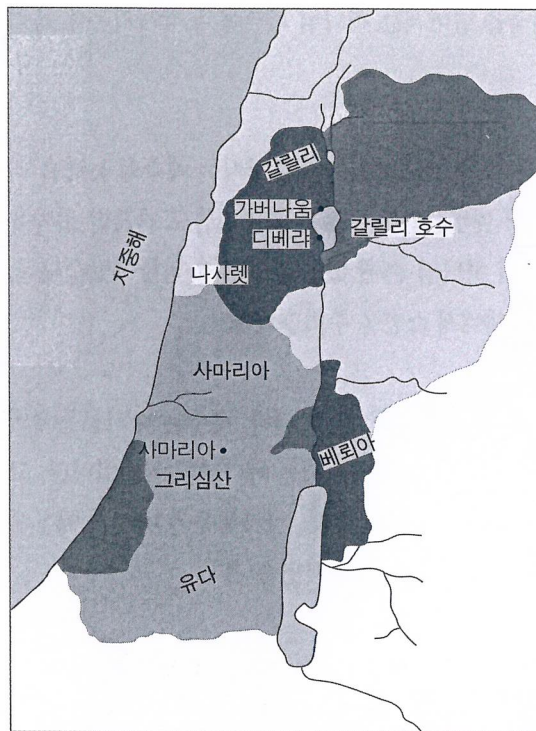


제 48 강

소외된 자, 가난한 자를 위한 복음(누가복음 연구 I)

■ 성경본문 누가복음 1:1-9:50 ■

프렐류드(Prelude)



사마리아

오늘 우리는 가난한 자의 복음으로 알려진 누가복음을 통해 계속되는 하나님의 구원사를 순례합니다. 전통적으로 누가복음은 '이방인 의사 누가'가 쓴 성경으로 알려져 왔으나 근일 성서학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저자를 '고도로 훈련된 이방인 역사가'라고 봅니다. 문체, 사건 배열, 역사의 흐름이 전문가의 솜씨라는 이유입니다.

누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길고 큰 책입니다.

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속편인 사도행전까지 합하면 사도 바울의 서신 전체보다

더 길고 또 크다고 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서문(눅 1:1-4, 행 1:1-2)은 한 성경이 1부와 2부로 나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 탄생, 공생애,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을 수록하고, 사도행전은 예수의 승천에서 시작하여 바울의 로마 당도에서 끝나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예루살렘에서 끝나고,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로마에서 끝나고 있다는 점에서 두 성경은 한 흐름의 두 에피소드였습니다.

누가복음은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구분해본 누가복음

예수의 갈릴리 선교	눅 4:14-9:50
예수의 예루살렘으로의 여행	눅 9:51-19:28
예수의 예루살렘 선교	눅 19:29-23:49

I.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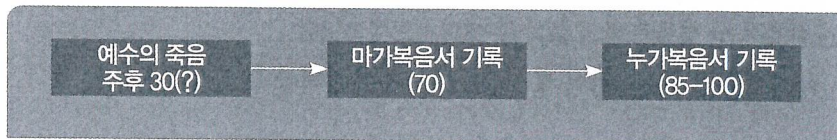
1. 소외된 자의 복음(누가복음 1:1-5:32)
2. 가난한 자의 복음(누가복음 4:18-6:26)
3. 이방인들의 복음(누가복음 4:25-7:10)
4. 여인들의 복음(누가복음 7:11-8:56)
5. 누가가 교회에 주는 교훈(누가복음 9:51-19:27)

II. 시대적 배경

주후 73년 예루살렘 멸망을 전후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밑에서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억압은 세금 45%를 걷어가는 착취로 이어지고, 일부 특권층, 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파 사람들과 세리들을 제외하고는 백성 모두가 극심한 가난과 싸워야 하는 소외계층으로 추락하였습니다. 더욱이 여성, 노인, 이방인들은 더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북쪽 갈릴리는 지역적으로 천대 받는 소외된 지방이었습니다. 먼 옛날 앗수르의 피가 섞였다는 이유였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천대받는 갈릴리에서 공생애와 사역을 펼치셨습니다.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가난한 자의 복음’이라 합니다.

〈연대표〉



III. 말씀과 해석

1. 소외된 자의 복음(누가복음 1:1-5:32)

‘소외’(疏外-alienation)라는 말은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이웃으로부터 단절되었으며,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끊어진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은 당시 세리를 소외된 자들의 전형으로 보고 있습니다(눅 5:30, 7:34, 15:1). 세리는 피와 땀으로 번 동족의 돈을 강제로 징수하여 로마제국에 바쳐온 매국노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로부터 외면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들을 비난하거나 꾸짖는 대신 깊은 관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레위라는 세리를 제자로 삼으시고(눅 5:27),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으며(눅 5:29),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머무시며 그의 집을 구원하셨습니다(눅 19:5). 고개를 높이 들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가슴을 치며 눈물로 기도하는 세리를 두고 예수님은 세리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칭찬하시기도 하셨습니다(눅 18:14). 그리고 예수께서는 죄 많은 여인의 향유를 받으시고 죄를 사하셨으며(눅 7:36-50), 십자가 위에서는 한 강도를 구원하셨습니다(눅 23:43).

버림받은 자들의 벗이 되어주신 예수,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과 딸들이었습니다.

2. 가난한 자의 복음(누가복음 4:18-6:26)

‘마그니피캣’(Magnificat)로 알려진 노래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성령 잉태를 통보받은 마리아는 오시는 이는 “교만한 자를 흠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눅 1:46-53)라고 노래하였습니다.

마태복음과는 달리 누가복음은 집 대신 말구유 탄생, 마음이 가난한 자가 아닌 실로 가난한 자(눅 6:20), 만찬에 가난한 자를 초청하라(눅 14:12-13)는 예수 를 누가는 가난한 자의 친구로 형상화하였습니다. 특별히 영생을 질문하는 관 원에게 영생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자에 게 나누어 주는”(눅 18:22) 것이라고 답하신 예수의 말씀은 누가복음의 핵심 메 시지였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33년 동안 가난 속에 오시고, 가난 속에 사셨으며, 가난 속에 하나님 앞으로 가셨습니다.

3. 이방인들의 복음(누가복음 4:25-7:10)

마태복음은 족보를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에서 시작합니다(마 1:1-16). 그러나 누가복음은 전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눅 3:23-38). 아기 예수를 두고 경건한 노인 시므온은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라고 찬양했습니다(눅 2:31-32).

나사렛 회당, 공생애 처음 설교에서 예수는 구약의 하나님의 은혜는 이방인 인 사렙다 과부와 수리아 사람 나아만에게 임하셨음을 강조하심으로(눅 4:26-27)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임하시고 계심을 가르쳐 주 셧습니다.

예수는 로마 백부장을 향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 였노라”(눅 7:9)고 칭찬하셨으며,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신 직후 이를 지켜보고 있던 로마 백부장이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눅 23:47)라고 고백하기도 했 습니다.

4. 여인들의 복음(누가복음 7:11-8:56)

가부장적 구조 속의 여인은 인격도 사람다운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남성의 부속물 정도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여인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시고 여인을 구원하시고 동역하셨습니다.

마태복음과는 달리 누가복음은 예수의 탄생을 둘러싼 주역으로 많은 여인이 등장합니다(누가복음 1-2장).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 엘리사벳(눅 1:7), 처녀 마리아(눅 1:48), 늙은 여예언자 안나(눅 2:36)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사렙다 과부 이야기(눅 4:26), 나인 성 과부 이야기(눅 7:11), 마리아와 마르다(눅 10:38), 예루살렘성에서 우는 여인들(눅 23:27)의 이야기들은 여인들 역시 예수 사역의 중요한 조역임을 의미합니다. 여성도 남성 못지않은 예수 사역의 팀들이었습니다.

5. 누가가 교회에 주는 교훈(누가복음 9:51-19:27)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의 갈릴리 사역과 예루살렘 수난 사이에 예수께서 주신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1) 처음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하신 뜨거운 열정과 관심이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와 갈릴리 중간에 있는 유대 땅이면서도 유대인들의 혐오와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북 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앗수르에 멸망했을 때 이방인과 피가 섞였다는 이유와 주전 538년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방해했다는 것이 증오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눅 10:30-37)를 들어 사마리아 사람을 죽게 된 사람을 구해준 이웃으로 부각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치유하신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예수께 돌아와 감사를 드린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눅 17:11-19).

(2) 두 번째 교훈은 '기도'입니다.

누가복음은 복음서 전반에 걸쳐 기도하는 예수를 크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들어 기도의 의미를 교훈하고 있습니다(눅 18:9-14).

바리새인은 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눅 18:11)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눅 18:13)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저 바리새인이(은) 아니”(눅 18:14)라고 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과시하는 위선적 몸짓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가슴을 치는 세리를 향하여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높이셨습니다(눅 18:14).

기도는 외형적인 수식어나 과시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기 부정이고 눈물이 참 기도임을 알려주셨습니다.

(3) 세 번째 교훈은 ‘재물’입니다.

‘탕자의 비유’(눅 15:11-32) ‘부자 나사로와 거지 이야기’(눅 16:19-31) 외 많은 비유는 재물과 연관된 예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묻는 젊은 관헌에게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눅 18:22)고 답하신 대목은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의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그 재물을 하나님과 가난한 이웃을 위해 사용하고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의미입니다.

IV. 성찰과 나눔

1.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핍박과 압제를 가해오는 로마 제국과 유대주의에 맞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반 로마주의, 반 유대주의를 내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편협한 민족주의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2. 그러나 이방인 누가는 예수를 세계주의와 세계선교라는 차원에서 보고 증언하려 했습니다. 전 우주와 전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품으면서도, 이 땅 구석구석에 놀리고 외면된 사람들을 예수의 사람들로 보았습니다.

3. 세계주의와 개체주의가 만나는 자리는 말구유였으며,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제나 그곳에 예수가 계셨습니다.

4. 그러기에 누가는 예수를 하나님의 나라와 이 역사가 만나는 자리로 보았으며, 예수에게서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은 로마와 이스라엘을 넘어 온 세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